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군산시, 위험요인 확진자 급증 가능성 염두... 실제 발생 시 비상계획 가동

전국민이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하며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다.

29일 강임준 군산시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면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이 추진된다.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방역조치가 완화 해제되며 확진자 억제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사망 발생 억제제를 위해 예방접종을 제고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전파 차단에 주력하게 된다.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되며 공



극적으로 기본 수칙은 유지된다. 지자체에서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이 가능하다.

위험도가 높은 유행시설은 접종중령, 음성확인제를 도입해 우선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도 접종중령, 음성확인제를 도입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며 인원 등 각종 제한에서 해제된다. 식당·카페도 미접종자는 4명으로 제한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

유사시설 간 인원제한 기준은 최소 기준으로 통합되고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열차 등 대다수에서 제한 중이지만 마스크를 벗게되는 고위험 행위에 해당돼 2차 이후 완화가 검토된다.

단계별·시설별 방역수칙을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으로 단순화 하고 필수 방역조치 중심으로 각종 제한이 해제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는 지난 28일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 체육 발전과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체육발전과 건강증진에 최선을”

익산시 · 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체육발전 협약

익산시가 장애인들의 체육복지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한다.

익산시는 지난 28일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 체육 발전과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장애인체육시설 건립·운영 지원, 선수 일자리 창출, 인식개선센터 및 체력인증센터의 설치·운영,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시는 장애인 스스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타구장, 론볼장, 역도장 등 장애인 체육시설과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다.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익산시 장애인

생활체육 자원 확대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은 셈”이라며 “익산시와 협력해 장애인 체육발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협약에 참여해주시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협약으로 익산시장애인체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축적된 역량과 지혜를 공유해 장애인체육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19일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전북도장애인태권도협회와 함께 장애인 태권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익산=이득훈 기자

‘온택트 군산시간여행축제’ 한달간의 여정 마무리

온라인 공연 야외전시 등 풍성

군산시는 지난 9일부터 31일까지 비대면·온라인으로 개최된 제9회 군산시간여행축제가 시민과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속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축제를 취소한 지난해와 달리 코로나19의 철저한 방역 속에 개최된 시간여행축제는 ‘특별한 일상으로의 시간여행’을 슬로건으로 메타버스 군산시간여행 마을 구축 운영 및 온택트 공연 프로그램, 야외 전시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온·오프라인의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코로나 시대 축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메타버스 군산시간여행은 제페토 앱을 기반으로 축제광장과 주요 관광지점을 온라인 공간에 구현하고 아바타를 이용한 인생샷 공모전과 혼합관광 이벤트를 통해 가입자수 7,000명, 방문횟수 6만회를 상회하는 놀라운 관심과



군산시는 지난 9일부터 31일까지 비대면·온라인으로 개최된 제9회 군산시간여행축제가 시민과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속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참여를 이끌면서 시간여행축제와 군산관광을 알리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구시청 광장 메인무대와 내항 제2공

연장의 모든 공연은 유튜브 및 페이스북 북으로 실시간 중계됐으며 온라인 플랫폼별 합산 조회수는 29일 기준 4만7천회로 집계됐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만들기 협약 체결

군산시는 친환경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만들기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시와 관내 장례식장 7개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군산지부, 군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군산 서해환경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간 장례식장에서는 상주의 편의를 위해 1회용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왔지만 환경 보호를 위해 1회용품 없

는 장례문화가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실천해나가기로 협의했다.

시는 조례·예산 등 사업 진행에 필요한 전반 사항을 추진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홍보 활동에 나선 방침이다.

아울러 장례식장 대표들도 앞으로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만들기 운동

에 적극 협력하기로 입을 모았다. 또 각 기관 노조에서도 소속 직원 및 상조 회원에게 위로 물품을 지급할 때, 1회용품 지원을 지양하도록 힘쓰기로 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정정순 군산지부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장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부지 개발허가 제한지역 해제

군산시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사정동 194-1번지 일원(면적 10만3,412㎡)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예정부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해 5년 만에 해제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당초 시는 군산 전북대병원 예정부지를 향유 토지 등의 보상 및 난개발 등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왔다.

이러한 제한조치로 인해 전북대병원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지난 2018년부

터 2021년 1월까지 예정부지 내 사유지 총 33필지, 103,720㎡에 대한 토지매입을 완료했다. 사업을 위한 주춧돌을 다질 수 있었으며 제한기간 만료에 따라 제한조치를 해제한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민의 염원인 군산 전북대병원 사업이 완료될 경우 전북도 평균 의료지표(의사 병상수 등)에 미달하는 의료시설 확충으로 응급·중증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타지역 이송에 따른 피해 최소화 등 다양한 의료적 혜택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 소식통

원광대 작업치료학과
최유임교수, 보건복지부장관상



원광대학교(총장 박병수) 의과대학 작업치료학과 최유임교수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최유임 교수는 대한이동학교 작업치료학회 학회장, 대한작업치료학회 부회장 및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 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작업치료 분야에 종사하는 임상가 및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보급, 관련 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을 통해 국내 작업치료 분야의 학문발전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한편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작업치료학과는 2014년 신설된 이후 매년 국가고사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구성원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등 심의·의결

익산시의회가 지난 29일 제2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익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57건의 안건 심의와 심임위원회의 사임지 현정점검 등을 실시했다.

특히 중앙동 침수피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통해 침수 피해에 대한 익산시의 입장정리와 피해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분회회에 앞서 평소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강경숙·오임선 의원이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또 2021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로 선정된 징수과, 보건지원과, 미래농업과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유재규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 발전하도록 노력해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